

등록 1999년 11월 10일 등록번호 부산라·01159 발행 2012년 7월 1일 정가 5000원

시민시대

통권 333호

7

2012

A journal exploring
the frontiers of monthly magazine



국제적인 '和의 文化' 전도사
인간자연과학연구소

고마츠 아키오(小松昭夫) 이사장



국제적인 ‘和의 文化’ 전도사

재단법인 인간자연과학연구소

고마츠 아키오(小松昭夫) 이사장



▲ 2005 APEC 본회의장이었던 해운대의 누리마루 앞에 선 고마츠 이사장

시네마현 마츠에의 괴짜 기업인

고마츠 이사장은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마츠에(松江)에 소재한 고마츠(小松)전기주식회사의 대표이사다.

그의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온 시마네현은 한자의 뜻풀이는 ‘섬의 뿌리’가 된다. 곧 섬나라 일본의 뿌리가 되는 곳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

히 이 지명이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것은 자기들 이름으로 ‘다케시마(竹島)’라고 하는 독도가 바로 시마네현에 속하는 것으로 인구에 회자되기 때문이다(일본인들이 대나무 한 그루 없는 바위섬인 독도를 무슨 뜻으로 다케시마(竹島)라 하는지 모를 일이다).

시마네현의 현도는 마츠에(松江)다. 고마츠 이

사장의 이름에 마츠(松)가 들어 있는 건 그가 마츠에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운명적 관계를 설명하는 듯하다.

전통적으로 일본인들은 나무 중에 소나무(松)와 대나무(竹)를 국목(國木)처럼 선호한다. 사람 이름이나 지명에 松(마츠)과 竹(다케)은 약방에 감초만큼이나 많이 쓰이고 있다.

필자는 6년 전 마츠에를 두 번 방문한 적이 있다. 순전히 고마츠 이사장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松江(마츠에)의 이름에 걸맞게 그 도시는 흡사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도시의 규모는 인구로 보아 20만 명쯤 되는 중소도시였지만 도시라기보다 하나의 그림 같은 휴양지 같은 분위기가 물씬했다. 특히 바다와 강이 조우하는 기수(汽水)지역이란 특성이 이 예쁜 물의 도시를 더욱 매력적으로 느끼게 했다.

필자는 지금까지 일본의 크고 작은 도시를 포함해 30여 곳을 둘러보았지만 松江만큼 감명을 주는 곳은 없었다. 어느 곳에서도 물과 소나무를 볼 수 있는 그곳이 더욱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마츠 아키오란 괴짜 때문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작달만한 키에 왜소하기 조차한 이 괴짜 사나이에 대해서는 이미 6년 전 '시민시대'에 소개한 바 있어 기억의 끈이 팽팽한 독자들 중에는 각인되어 있을 줄 안다.

필자가 고마츠 이사장과 인연을 맺은 것은 3년 전 세상을 떠난 이정석 선생의 소개로 이루어졌다. 선생은 목요학술회 회원으로 필자에게 많은 도움과 지도를 해준 은인이었다.

선생의 일본에 대한 총체적 지식은 때때로 일본 지식인들을 압도할 정도로 탁월했다. 선생이 고마츠 이사장을 소개한 까닭은 그의 유별난 한국에 대한 관심과 행동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과거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괴롭히는데 대하여 사과하고 조금이라도 그에 대

한 보상을 하고자 독립기념관, 백범기념관, 안중근 의사기념관 등을 찾아가 헌화하고 성금을 기탁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최근(5월 초순)에는 유럽의 네덜란드 헤이그로 날아가 독립지도자 이준 열사의 기념관을 찾아 머리를 숙이기도 했다. 그리고 과거 일본의 폭력이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유린하고 수많은 인민들에게 불행을 안겨준 과거사를 단순히 반성하고 보답하는 한시적인 것으로는 이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국제적인 평화운동에 나선 것이다.

고마츠 이사장의 이 같은 행동을 지켜보고 평가한 故 이정석 선생은 필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알리는 일에 앞장서곤 했다. 고마츠 사장을 취재한 이후 지난 6년 여간 거의 1년에 한 번 꼴로 만나곤 했는데 3년 전 목요학술회 창립 30주년 때에는 기꺼이 부산을 찾아 축하를 해주기도 했다.

필자가 이번 호에 그와의 대담 기사를 게재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14~17일까지 부산BEXCO에서 개최한 국제식품산업전시회에 그의 회사가 참여한 것을 계기로 6월 16일 부산을 방문한 후 여수EXPO를 관람할 일정이 필자에게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필자는 그의 부산방문 일정에 제주 일정이 있었지만 취소하고 그의 부산 일정에 함께하기로 했다. 그런 후 일정을 하루 앞당겨 6월 15일 부산을 방문할 수 없는지 의향을 물었다. 이유는 그날 오후 6시 '시민시대'의 발행처인 목요학술회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임진왜란 420년을 맞아 국내 최고의 이순신 장군 연구가인 헌법재판소의 김종대 헌법재판관이 쓴 「이순신, 신(臣)은 이미 준비를 마쳤나이다」의 출판을 기념하고 저자의 강연회를 개최하는 자리에 고마츠 이사장의 참여가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 그의 참여는 그에게도 큰 정보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한 역사는 꺾고 있었지만 풍신수길의 지휘한 임진왜란의 역사와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세계적인 영웅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 이사장은 필자의 요청을 수락하고 하루 먼저 입국했고 오랜 가뭄을 해결시키는 단비를 맞으며 행사장에 도착해 주었다.

이튿날인 6월 16일 오후 필자는 그를 해운대 동백섬으로 안내했다. APEC정상회담 장소인 '누리마루'를 소개하는 것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그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다. 그리고 경관이 빼어난 해운대의 상징이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Walking 순환코스를 거닐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한층 의미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통역은 본지 성현정 기자가 맡았다. 대답은 그가 최근 몇 년 동안 지금까지의 '평화운동'에서 '和(화)의 문화'운동으로 보다 본질적이고 광의적인 평화운동으로 변화를 꾀한데 대하여 초점을 맞추었다. 다음은 그와의 대답내용이다.

인간자연과학연구소 설립 배경과 활동

Q1. 이사장께서는 20여 년 전부터 국제적으로 평화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사회운동가도 아닌 기업인으로서 평화운동에 뛰어든 특별한 동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A. 공업고등학교 기계과를 졸업 후 8년간 농업기계연구개발에 종사하며 떠오르는 생각들을 연역법·변증법·귀납법을 사용하여 꿈을 실현하는 방법을 몸으로 터득하였습니다. 제가 26세였을 때 그 회사가 도산하여, 1개월간의 좌선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과 죽은 후의 일도 상정하여, 인생의 스토리를 생각하는 사고회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2년간 오사카에서 소규모 비

즈니스의 실전을 배운 후 1973년 28세에 태어나고 자란 시마네현에서, 동생과 둘이서 펌프수리와 전기기기 조립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지역에 1개사 밖에 없었던 제어반과 분전반 사업을 하는 기존회사를 경쟁의 목표로 하여 힘을 합하여 서로 선두를 다투며 노력한 결과로 오늘의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32세에 처음 해외여행으로 계엄령 하의 한국에 왔습니다. 야간합승택시에서 제가 일본인이라는 것이 원인이 되어 말썽에 휘말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방위청 관료였던 海原治(카이바라 오사무) 씨로부터 「명성황후암살사건과 칠탈(七奪): 일본이 한국에서 뺏은 일곱가지. 즉, 주권, 국왕, 인명, 국어, 성씨, 토지, 자원」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앞의 사건과 명성황후암살사건에 대해 알게 된 일 이 두 가지 일이 이후 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사회 인프라의 변화를 순풍으로 하여, 몸 크기에 맞는 사회문제를 경영자원으로 하여 인재, 자금, 첨단기술을 투입하여 고속자동문 門番(문반)과 종합물관리시스템 야쿠모 水神, 두 가지의 환경사업을 일으켜 시장을 창조하고, 제품을 브랜드화하여 그 수익으로 사원교육과 연구소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Q2. 이사장의 평화운동에는 재단법인 인간자연과학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설립취지와 사업, 그동안의 사업실적을 소개해 주십시오.

A. 1988년, 「知」로써 사회를 개혁하는 시대가 올 것을 예감하고 「지혁숙(知革塾)」을 설립하였으며, 1994년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추궁되고 있는 일본인이 미래의 전망을 개척하는 스토리를 그려내기 위해서 인간자연과학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3년 여의 준비 후, 1997년 일본인으로서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기념관에 미래를 개척하기 위



▲ 2012년 6월 15일 목요학술회가 주최한 「이순신장군」 관련 책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고마즈 이사장과 저자 김중대 헌법재판관(가운데)

해 사죄·헌화·기부를 하고, 그 취지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한국과 중국, 미국, 러시아 유럽 등의 「전쟁과 평화박물관」에 공식 방문과 연구방문을 계속해 왔습니다. 또 제 고향 시마네현의 치수의 위인 ‘스토야헤에’ ‘清原太兵衛(키요하라타헤에)’ ‘大梶七兵衛(오오카지시치베에)’의 소설· 아동문학· 만화를 출판하고, 기념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중일전쟁 때 島根(시마네) 鳥取(돗토리)의 병사가 큰 재난을 안겼고, 일본 측도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던 중국 山東省(산둥성)에 세워진 국공합작 기념관을 공식 방문하여 헌화와 기부, 그리고 취지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중·일 외교정상화 30주년 기념사업으로써 공자, 맹자, 스토야헤에, 키요하라 타헤에 등 4개의 동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그 중 공자와 맹자상은 돗토리현이 만든 일본 최고의 정원 연조원「燕趙園」에 건립하였습니다. 그 이후 일본 七福神(칠복신)의 원류라고 전해지는 팔선인(八仙人)과 서왕모(西王母)의 대리석상 건립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손자(孫子)의 고향 중국 동영시로부터 지금까지의 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손자의 동

상을 받게 되어 함께 건립하였습니다. 3인의 치수의 위인에 대하여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4대강 개발사업에도 전달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의견에 따라 김현철 선생의 지원으로 서울 지사 설립을 기념하여 한국어판 만화로 출판하였습니다. 이후 「국민일보」에도 특집기사가 게재되어 블라디보스톡과 동해의 스카이미나토(境港) 사이를 운항하는 배 안에서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본사공장 준공을 기념하여 중국의 「전세장서傳世藏書」전 123권을 시마네대학(島根大学)에 기증하고 1999년, 연구소의 이론을 체계화한 「태양의 나라 이즈모(太陽の國IZUMO)」를 출판하고, 2002년 「일중영대역는 어」, 2008년 「중일한영대역일본고전명언록」, 2011년 「조선반도와 일본열도의 사명(朝鮮半島と日本列島の使命)」의 편찬, 국제심포지엄의 개최, 그리고 활동내용의 영상기록을 만들어 대립과 통합에 의한 발전의 사이클 「和의文化」가 생성되는 “공감의 플랫폼”을 만들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평화활동가로 보여지는 원인이자 합니다.



▲ 2007년 3월 안중근 의사 순국기념식 참석 후 명성황후 생가를 방문한 고마츠 이사장(왼편 세 번째)

Q3. 아주 의미있고 인상적인 활동을 많이 펼쳐 왔군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한 평화운동이 ‘和의 운동’으로 보다 깊고 넓게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平和’와 ‘和’는 언뜻 보기에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굳이 ‘和의 文化’를 강조하시는 까닭은 무엇인지요?

A. 핵 억지력의 효과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적 금융혼란이 「信」의 붕괴 연쇄현상을 불러 일으켜, 인류가 만들어온 모든 조직은 내부 붕괴나, 아니면 진화를 향한 새 발걸음을 내딛느냐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사업과 연구소의 활동을 통하여 국제사회 속에서 공감의 플랫폼 「平」을 만드는 프로세스에서 「信」을 만들어내고 대립·통합·발전을 반복하여 「和」가 생겨나는 환경을 마련해 왔습니다.

인류가 불을 얻게 되고, 불은 화약, 다이내마이트를 지나 핵에 이르게 되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동서냉전시대를 지나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3

대 핵 대국과 기타 많은 핵 보유국과 준 핵 보유국이 생겨났습니다. 또 원자력 발전소는 전세계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스리마일섬 체르노빌에 이어 심각한 후쿠시마 원전사고까지 일어나 전세계에서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 또는 계획 중인 원자력발전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언어의 발달은 문자와 인쇄, 그리고 스마트폰, 태블릿단말기, 클라우드컴퓨팅 시대를 맞아 정보의 공유화가 전세계적 규모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활기반인 의식주는 국경을 초월하여 분업이 진행되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3대 핵 대국의 결절점인 「일본열도와 조선반도」에 인류의 진화와 존속을 위한 공감의 스테이지를 만들어 미국의 「스마트파워」, 중국의 「화해 和諧」 한국의 「화쟁 和諍」, 일본의 「화양」으로부터 예지를 빌려 참된 「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견식과 지혜와 용기, 그리고 행동력이 시험되고 있습니다.

‘和’는 중용의 삶에서 확대되는 나선운동

Q4. ‘和의 문화’에 대한 이사장님의 이상과 철학을 읽을 수 있을 것 같군요. 일반적으로 유교나 불교문화권에서 ‘和’는 가장 인간적이며 보편적인 가치로 생활 속에 깊이 배여있어 결코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일본에서의 ‘和의 문화’를 보다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A. 칸트의 『인류는 평상의 상태가 전쟁상태이다. 그러므로 평화는 창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큰 말입니다. 이것은 제 사건입니다만 ‘和’는 공감의 무대 ‘平’의 상위에서 대립·통합·발전을 반복하는 과정으로 정지상태가 아닌 중용의 삶에서 확대되는 나선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재였던 弘法大師 空海(코호호우다이시 쿠우카이)는 1100년 전에 중국에서 「진언밀교」를 일본으로 가져와 교토의 東寺강당에 입체만다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인류는 처한 환경에 따라 한없이 악마에도, 또는 천사에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상당한 다양성을 가진 생명체」라고 느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간격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면 모든 것은 윤리적으로 해결되고 희망이 샘솟는 미래를 그릴 수 있다고, 글로벌화한 세계에 있어 3대 핵대국에 둘러싸인 조선반도와 일본열도가 긴인류의 역사 속에서 세계로 뻗어가는 「和의 문화」를 생성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지역이라는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Q5. 이사장께서 밝히신 ‘和의 문화’를 창출하는 인간자연과학연구소의 프로젝트 구상에서 인류가 당면한 현상을 대립양상으로 진단하면서 인류사회의 새로운 진화를 위해서는 ‘和의 문화’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진단으로 생각되며 처방 또한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

다면 인류사회의 새로운 진화를 위한 ‘和의 문화’의 구체적 실현방안은 무엇인지요?

A.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것은 만고의 정의다. (合成散敗萬古定理)

번영의 끝에서는 쇠퇴의 싹이 돋지만, 쇠퇴의 끝에서는 번영의 싹이 돋지 않는다. (繁榮の極みに衰退の芽は生じ, 衰退の極みに繁榮の芽は生ず)

일본에서 오랜 생활 속에서 원한과 원망을 품고 사는 사람, 혹은 체념과 무관심한 체 살아온 사람, 거꾸로 그 입장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이룬 사람, 지금부터 그것을 기회로 하려는 사람, 일본에는 40만 명에 이르는 특별영주권을 가진 재일한국인과 재일조선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북한의 국민과 일본국민이 함께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이해를 구해 세계적인 「和의 문화」를 창출해야 할 역할이 돌아왔다고 확신합니다. 그 구체화의 출발점은 오키나와, 센카쿠제도(尖閣諸島), 대만의 해협, 독도를 중심으로 한 일본해, 북방영토에 있습니다. 그 시기는 지금입니다. 사용 후의 핵연료의 재처리계획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있습니다만 이것이 실패하면 국가민족의 붕괴만이 아니라 인류붕괴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으며 역사상 유례없는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여러나라로 부터 역사문제로 얽힌 지적을 받고 있다

Q6. 그리고 일본 주변의 ‘和의 문화권’으로 오키나와, 센카쿠 열도, 대만의 해역과 독도를 중심으로 한 일본해 등을 언급했는데 이는 너무 일본 위주의 ‘和의 문화’를 위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과 또 한편으로 ‘和의 문화’의 필요성이 일본에 의해 야기되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07년 7월 남경대학살 기념관 포럼에 참가한 고마즈 이사장

A 「和의 문화권」은 결코 일본본위에 의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처음으로 内政化(식민지화) 한 곳은 메이지 유신의 류큐처분으로 인해 생긴 오키나와 현입니다.

또 오키나와는 전쟁 이후 미국의 시정화(施政化)에 들어가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의 전초기지가 되고 일본환원 후에도 미국의 중추기지로써 중동을 포함한 많은 전쟁과 평화에 관계해 왔습니다.

일본열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 센카쿠열도, 대만의 해협, 북방영토문제, 독도/다케시마를 중심으로 한·일본해를 둘러싼 한일간 그리고 일본과 북한의 문제, 한국과 북한간의 긴장에 의한 조선반도의 문제, 이 모두가 해당국가간뿐만 아니라, 세계를 내다보는 인류사적인 시점에서 생각하고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찬스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는 금융경제의 막다른 상황, 핵확산, 방사능, 분쟁, 자살, 「내성균(耐性菌)」의 발생과 면역력의 저하로 인해 다발하는 암과 만연하는 바이러스 등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배경 속에서 일본은 한국, 중

국과 기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과거의 역사문제에 대해 엄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20여 년에 걸쳐 가해 측의 전후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저를 단장으로 방문단을 결성하여 과거 내정간섭을 했던 나라와, 교전을 했던 나라에 사죄하고, 인과관계와 그 배경을 여행을 계속하면서 『和의 文化』의 흐름을 만들어낼 무대를 만들어왔습니다.

Q7. 먼저 오키나와의 경우 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고통을 안긴 역사는 오로지 일본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의 결과이며 독도의 경우도 일본의 무리한 영토확장의 아욕에 따른 결과로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힘으로 한반도를 침략하지 않았다면 독도 문제는 일본이 주장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이사장님의 독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A. 인류는 지금부터 세계적인 「信」의 붕괴로 인해 곤란한 시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독도 문제, 동해/일본해 호칭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대한민국, 북한 3개국의 견식을 평가받는 문제로서 인류사의 평가에 세계의 분쟁지대에 희망

과 용기를 불어넣는 사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와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을 숙명으로 하는 일본과 대한민국, 북한이 반드시 해내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국민국가인 일본과 한국에서 국민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논의의 장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일본과 한국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국가의 시대에 이르러 경위와 현상으로부터 미래를 내다보고 관계국의 승인에 의해서 영토를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고유의 영토는 세계 어디에도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저의 고향이며 또한 회사의 본사가 있는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할 때에는 숙려한 끝에 찬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독도/다케시마문제, 동해/일본해 바다의 호칭문제로 대립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첨단기술과 시간과 공간의 간격을 활용하여 대립의 에너지를 통합의 에너지와 함께 대립 통합 발전을 반복하는 「和의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Q8. 독도 문제는 역사의 관점에서 보아야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독도문제만 가지고 깊은 대화를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화제를 바꾸어 슬픈 역사의 섬 오키나와에 ‘국제평화센터’의 창설을 비롯하여 근대 전쟁의 모든 희생자를 기록하는 ‘메모리얼 타워’의 건립, 세계의 전쟁과 평화에 관련된 사진과 영상을 볼 수 있는 ‘세계평화·전쟁기념관’의 건설, 평화회의, 평화 공헌자를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 ‘和의 문화창조 올림픽’ 등을 개최하는 ‘和의 전당’ 건설 등을 이사장께서는 제안했습니다.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실현될 수만 있다면 인류의 평화증진에 대단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

각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실현시키느냐가 중요한데 이사장께서는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A. 오키나와는 비극의 섬인 동시에 기지로서의 섬으로서 전세계에 비극을 초래한 두 가지 측면을 가진 섬입니다.

이 섬에 일본, 미국은 물론이고 전세계 사람들의 미래를 개척할 「知」의 시설을 만드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본인과 재일한국인, 조선인들이 서로 얘기를 나누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류이익이라고 하는 목적을 기본으로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생긴다면, 「사람과 사물, 자본이」 모이는 발전의 사이클이 이루어집니다.

「제로로부터의 창조」를 지향하는 이 프로세스는 21세기의 가정, 회사, 국가, 인류사회 등 모두 본질은 같은 것으로서 지속 가능한 새로운 커뮤니티를 구상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키나와 음악을 연구하는 사람들 속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기대신 샤미센을 손에 든 류큐(琉球)라는 왕국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폴레옹이 듣고 「다음에 태어날 때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다」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만나면 형제」라고 하는 말은 오키나와에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연이 있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의 강연을 계기로 「평화를 위한 박물관 국제 네트워크」이 사회의 통괄디렉터 피터반 덴듀겐박사로부터 노벨의 비서였으면서 여성노벨평화수상자 제1호인 베르타 즈토나여사의 기념관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기념관을 오키나와에 세울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지금은 초안은 다듬는 단계입니다. 그것에 앞서 즈토나의 흉상을 제작

하고 즈토나전을 오키나와에서 개최하고자 관계자와 협의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핵 대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뿐이 아니라, 전세계의 어린이, 여성, 紳士(識者)에게 지속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세계 또한 새로운 시대를 향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잘못된 과거에서 和의 文化 창출 필요

Q9. 이사장께서는 '和의 文化' 창출에 있어 인류전체 보다는 우선 한반도·일본·중국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현재 이 3나라 간에는 영토, 과거사 문제가 날줄 씨줄로 엮여져 있어 솔로몬왕의 지혜로도 풀기 어렵게 난마처럼 엉켜져 있습니다. 한·일간의 독도, 위안부, 강제징용, 문화재 환수 문제가 있고, 일·중간에는 영토문제와 일·청전쟁 이후의 보상문제 등이 걸려 있습니다. 문제는 3나라의 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일본의 사죄와 그에 따른 법적, 인간적 보상입니다. 일본은 전쟁이 끝난지 67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자신들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와 악행을 인정하지 않으려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사장께서도 잘 아시듯이 개인간의 관계에서도 극심한 갈등과 다툼이 있어도 서로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된 사람이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화해(和解)야말로 이사장님이 이루어 내고자 하는 '和'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일본과 일본국민이 한국과 중국이 납득할 수 있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과와 그에 대한 보상을 한다면 '和'는 일본의 모든 곳에서 분출하는 온천처럼 흘러 넘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잘못된 과거의 역사를 온천에서 말끔히 씻어낼 수 있다면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和의 文化' 창출에 획

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和의 文化' 창출에 혼을 쏟고 계시는 이사장께서는 먼저 일본 국내에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지난 역사에 대한 일본과 그 국민의 반성과 사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和'를 이루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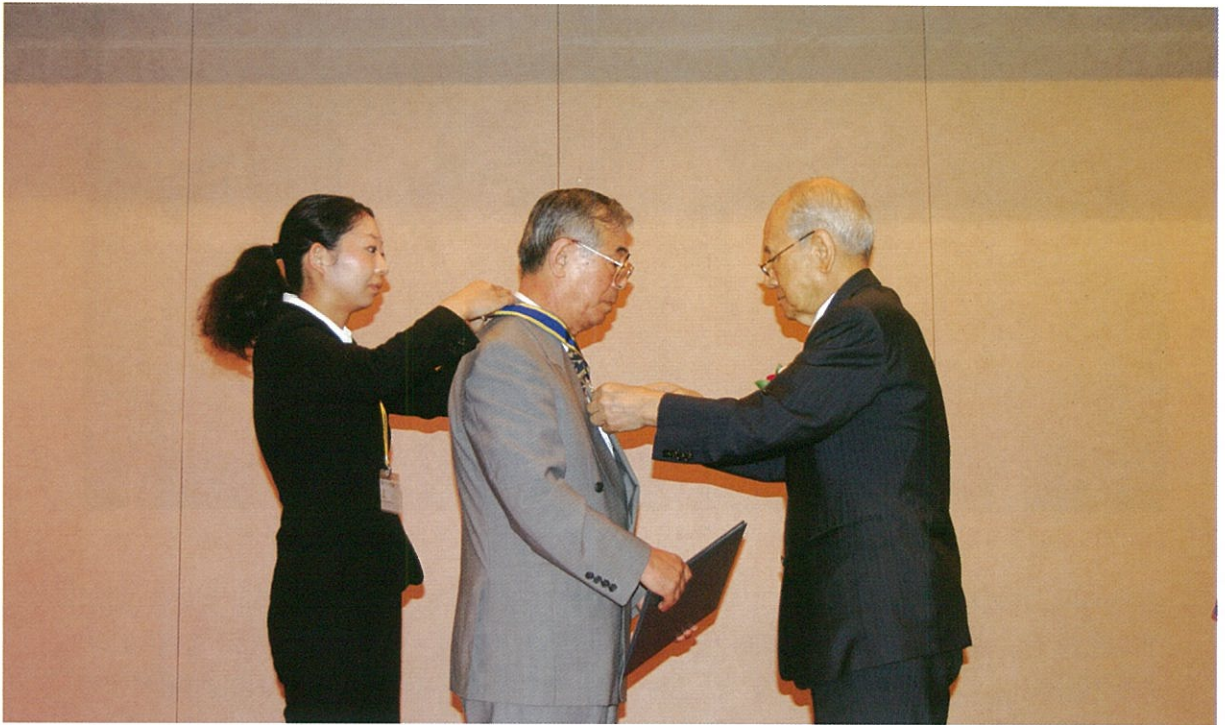
A. 100% 동감입니다. 저는 많은 재난을 남겨준 세대의 자손으로서 일본인으로 각국을 방문하며 전후 책임을 수행하는 출발점으로써 사죄를 해왔습니다. 6자회담국의 회원국인 대한민국, 북한, 일본 이 3개국에 관계된 모든 역사문제를 모두 테이블위에 올려놓고 보면 문제는 너무나 많이 산적해있고 분노와 한숨이 나올 것입니다.

그 산적한 문제들은 저는 「禍」라고 정의합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전, 전시, 전후 책임」 이 세 가지의 책임으로 나누어 기술혁신의 성과를 더하면 「福」 즉 「和」가 생성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독도/다케시마, 동해/일본해 호칭문제, 위안부문제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2011年 2月 22日 「다케시마의 날」에 발간한 「조선반도와 일본열도의 사명」에서도 기술하였습니다만 2008年 5月 한국방문 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80세를 넘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본에 대한 항의활동과 조우하고, 그 분위기와 그 집회가 이어져온 회수에 강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항의행동은 1,000회를 넘고, 위안부소녀상도 건립되어 미국에도 이미 2개의 비가 건립되었으며 이후에도 다수의 비가 세워질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한일양국과 민족의 붕괴로 이어지는 본질적인 문제로서,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인의 견식과 지혜와 용기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들은 전쟁 중 엄청난 수난에



▲ 2010년 7월 고마즈전기 서울지사 개설 기념식에서 대한적십자사 서영훈 총재로부터 명예장을 수상하는 고마즈 이사장

의하여 「존엄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일본인, 한국인 또한 인간으로서의 자각이 있었다면 그녀들의 전후 오랫동안의 존엄의 생명을 되찾기 위한 활동을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의 책임이란 전쟁을 미연에 막지 못한 전전책임, 전시책임, 그리고 전후 책임 이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전쟁 중 어린아이였던 세대 이후는 전전책임과 전시책임은 없습니다. 있다면 전후 책임이 있겠지요. 전전에 만들어진 철도 등 사회의 인프라는 이용하면서 타국과의 관계에서 생긴 원한과 원망은 뒷세대에 미루어 버리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전후 책임이란 전쟁에 이르게 된 배경, 전투행위, 그리고 현대사회의 문제를 조사 연구하여 그 성과를 재차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과 항구평화를 이루는 자원으로써 활용해야 합니다. 일본인은 물론 풍요로워진 한국국민을 포함하여 지금을 살아가는 우

리들의 자손과 인류의 역사에 대한 사명입니다. 사죄와 배상은 그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발효식품은 방사능에 대한 면역력 증진

Q10. '和의 文化'와 관련하여 핵과 방사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 방사능 재해와 그에 따른 면역력 증진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가운데 발효식품의 섭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자연과학연구소가 첨단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하여 방사능에 대한 면역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발효문화의 선진화를 이끌겠다고 하는데 발효식품이 방사능에 대한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근거는 무엇이며 발효문화의 선진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A. 저의 오랜 지인인 미국 보스턴에 살고있는 마크로비오틱의 세계적인 지도자인 구보 (久司道夫)의 네트워크 「원 · 피스폴 · 월드」의 일본대



▲ 2003년 10월 일본 돗토리 현의 중국공원인 연조원에서 공자·맹자 동상 제막식에 참석한 고마즈 이사장(오른쪽 두 번째)

표 大場淳一氏에게 나가사키 원폭 의사의 기록이라는 부제가 붙은 『死의 同心円』이라는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나가사키 원폭 당시 피폭중심지로부터 1.8km 떨어진 곳에 있는 병원이 피폭당하였습지만, 입원환자도 직원들도 피폭증상 등 방사능의 직접적인 피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의사는 직원들에게 「짠 된장국을 만들어서 매일 먹게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었습니다. 이 의사가 쓴 책이 영문으로 번역되어 구미(歐美)에서 판매되고 있고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유럽에서는 된장이 날개 달린 듯이 팔렸다고 합니다. 된장은 말할 것도 없이 발효식품입니다. 균, 결국 미생물은 각양각색으로 다양하며 인류는 아직 그 전모를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변화와 균의 조합에 대한 새로운 상관관계의 발견이 기대됩니다. 조선반도와 일본열도는 김치, 된장, 간장 등 발효식 문화의 전통이 이어져오고 있으며 발효에 적합한 독자적 기후풍토도 있습니다. 첨단기술의 성과와 전통의 노우하우를 활용하여, 또한 3개국이 대립하는 에너지를 활용하여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하면 이 지역을

인류번영의 기초가 되는 면역력의 비약적 향상을 향한 발효식 문화의 선전기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의 벅쿠버올림픽에서의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의 활약은 우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시마네현에서 2012년 7월에 열리는 매일 신문사 주최의 전국농업콩쿠르 전국대회에서 그 구상을 발표할 것입니다.

Q11. 또한 인간자연과학연구소는 세계적인 식량위기를 대비하여 ‘일본해=동해해양목장’을 제안했으며 이 해양목장의 중심에 있는 독도를 ‘和의 문화권’ 발상지로 하기 위해 ‘일본을 포함한 조선전쟁 관련국의 민족색 풍부한 여성과 아이들의 군상(群像)을 건립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장께서는 독도를 일본해에 속한 것으로 단정하고 있는데 무언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만일 독도를 일본해에 속한 것으로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한·일관계 뿐만 아니라 이사장님 개인에 대한 한국민의 인식에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A. 「다케시마/독도에 일본을 포함하여 조선전쟁에 참전한 모든 관계국의 민족의상을 입은 여

성과 아이동상을 건립하여 인류사회의 미래를 여는 섬으로~」라고 1999년에 제안하였습니다. 또 2002년에 일본해/동해 호칭을 「中海」로 제안하였습니다만 계속 무시되어왔습니다.

독도/다케시마 문제와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기로 중국에서는 상해에서 항일운동이 일어나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을 때 다케시마, 센카쿠제도, 북방영토까지 세 가지 영토문제의 분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도 한국도 서측사회의 일본으로서 은혜를 입어 오늘의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국에서 보면 동포, 일본에서 보면 전쟁책임과 전후 책임에 관련된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당사자간은 물론 인류사회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관계국민의 세계에 대한 전후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케시마와 독도문제, 동해와 일본해 호칭문제는 공개된 장소에 대화를 하지 못한 것이 최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스스로 나올 것입니다.

헤이그의 이준 평화기념관 방문

Q12. 이사장께서는 지난 5월 3일 네덜란드의 헤이그를 방문, 그곳에 있는 한국의 독립지도자 이준 열사 기념관에 둘러 현화하고 안중근 의사의 '독립의 서' 복사본을 기증했습니다. 일본인의 이준 열사 기념관의 공식방문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주 어려운 여행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준 열사 기념관을 찾은 뜻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A. 2012년 5월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 헤이그에서 개최된 「평화를 위한 박물관 국제네트워크」이사회에서 강연하였습니다. 그 곳에 있는 이준평화기념관에서 이기항 원장을 방문하고 「獨立」이라는 서예의 필사본을 전달하였습니다. 거

기에까지 이른 경위는 2008년 10월에 교토에서 열린 제6회 국제평화박물관회의에 안중근의사기념관 김호일관장, 이해균 총무부장, 송석원 경희대학교 일본연구소장을 당 연구소가 초대하여 그 당시 안중근의사의 유묵인 「獨立」을 포함하여 몇 점이 일본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한국에서 그 유묵이 전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 그 시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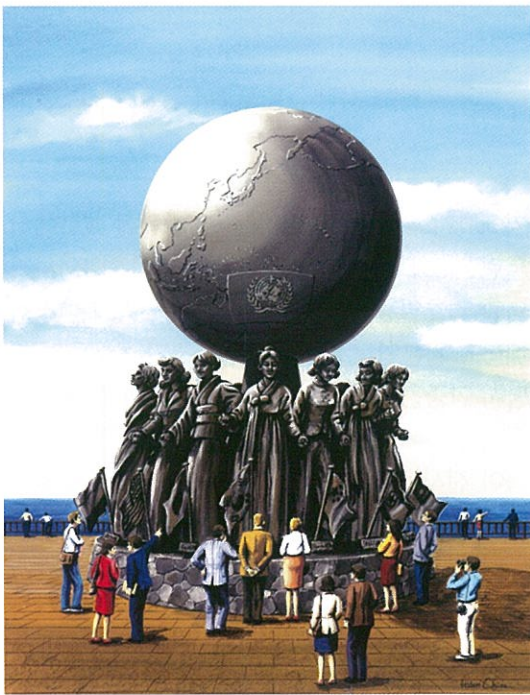
안중근 의사는 여순에서 한국, 일본 등 각각의 독립에 의해서 동양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글로벌화가 진행된 현대에 있어서는 3대 핵 대국인 중국, 러시아, 미국의 이해를 구해 북한, 대한민국, 일본 3개국이 세계의 기대를 짊어지고 항구평화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Q13. 사실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不和'의 중심지역입니다. 한반도의 분단과 분쟁에는 일본의 책임이 큼니다. 그러나 일본은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한반도의 분단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일본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 질문은 이사장께서 추진하시는 '和의文化' 창출에 가장 핵심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A. 조선반도의 분단, 또 조선전쟁이 발발하기까지의 경위에는 일본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일본, 대한민국, 북한 등 3개국이 중국, 러시아, 미국의 협력을 얻어 각각의 특징을 활용하여 전세계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조선반도의 통일이 되기 전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고난의 역사를 건다가 돌아가신 많은 분들의 자손에 대한 현재를 살아가는 관계국민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 독도에 건립을 제안하는 지구공생 인연맺기의 동상 조감도

Q14. 이사장께서는 지난 20여 년간 일본의 양심으로서 일본의 국익이나 정서에 반하는 거침없는 언행으로 일본 국내에서 비난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A.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국익이란 인류의 이익과 국민이 노력하면 「人間」이라고 하는 인식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것과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필요 불가결한 것이 아닐런지요? 저의 활동이 가끔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위해를 당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2008년에는 연구소에 인턴 십 직원으로 한국에서 온 여학생을 채용하여 「다케시마의 날」전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2009년의 「다케시마의 날」에는 6자 회담참가국의 국기를 걸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우익의 거리 선전용 차에 에워싸인 중 경찰이 보호해주는 가운데 7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때 상영한 안중근의사의 영상은 큰 감동을 불렀습니다. 참가자는 시마네현이 마련한 공식행사보다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전국 일간지의 제1면에도 보도되어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2010년에는 「日本海=東海를 둘러싼 朝鮮・

韓国・日本에서 세계평화를」이라고 하는 심포지엄을 여성을 중심으로 개최하여 연구소가 이 행사를 후원하였습니다. 재일조선인들로 구성된 조선가무단의 노래와 무용 공연 이후 모임에 참가한 전원이 손에 손을 잡고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회장 안에는 몇 명의 우익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손을 맞잡고 함께 춤의 대열에 들어왔습니다. 여성에 의한 기획으로 인한 신선함이 참가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게 했습니다. 이 경험은 프로젝트의 진전에 밝은 전망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일본의 6천여 곳에 종합물관리 시스템 사업

Q15. 끝으로 지금 경영하고 계시는 사업을 소개해 주십시오.

A. 일본의 293개 지방자치단체, 6,000개소의 시설도입 실적을 가진 클라우드에 의한 종합물관리 시스템 야쿠모수신「やくも水神」으로 세계 평화의 플랫폼 구축의 일익을 짊어질 만들어 내도록 현재 중국,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6월 21일 영업기획본부장이 중국의 수리부(한국의 수자원공사와 같은 조직)를 방문하여, 실무책임자를 비롯하여 JICA의 관계자들과의 모임에서 야쿠모 水神「やくも水神」시스템의 금후 중국진출의 가능성에 대하여 대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국에서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로서 가까운 시일 내에 프레젠테이션을 계획하고 앞으로도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올해는 일중국교정상화 40주년의 해입니다. 중국산동성, 국공합작의 땅에서 야쿠모 水神「やくも水神」의 브랜드명의 유래인 치수의 위인스토야해에의 동상을 제작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6월 25일가와노, 현지법인 코마츠코리아의 간부사원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 주임연구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관계자들과 미팅을 하였습니다. 한국은



▲ 2012년 5월 3일 헤이그 이준 열사 기념관장에게 안중근 의사 독립필사본을 전달하는 고마츠 이사장

소규모수도시설의 감시시스템이 아직 미비하여 야쿠모 水神「やくも水神」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후 인적 교류를 포함하여 많은 면에서 관계를 유지해나갈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시장창조에 성공한 門番(스피드 자동문)사업은 2010년 현지법인 코마츠코리아를 설립, 4회에 걸쳐 서울과 부산의 전시회에 출전하여 자동차 기계 전자 출판 물류 의약 식품업계의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서울뿐 아니라 부산과 경상도 지역으로부터도 당사의 경영이념에 찬동한 대리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시민 시대와 부산의 여러분과 함께 「門番」과「水神」의 사업뿐이 아니라, 발효식품과 무역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에 임하고자 합니다.

고마츠 이사장은 일본의 진정한 애국자

필자는 고마츠 이사장과 인터뷰를 끝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일본적인 사람이며 누구보다도 일본을 사랑하는 애국자라고 생각했다.

개인적으로도 자기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나 자신감 없이는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건 쉽

지 않은 일이다. 하물며 자기의 고향, 자신의 나라에 대한 사랑과 충성없이 이웃 나라에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행동에 옮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그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행동은 한·일 두나라 간의 특수한 역사관계를 이해하고 그러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오랫동안 그와의 교류에서 느낀 것은 남다른 역사인식과 문화의식이었다. 그의 투철한 역사관은 인간자연과학연구소를 소개하는 표제에 선명하게 표출되고 있다. ‘역사에 어두운 사람은 현재에 있어서도 어둡다’고 갈파한 독일의 <바 이츠제커>의 경구와 독일을 독일답게 만든 철인 재상 <비스 마르크>의 다음 말을 올려 놓고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현명한 사람은 역사를 통해 배운다’고...

고마츠 이사장이 이 명언을 첫 머리에 올려놓은 것은 아마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역사를 철저히 왜곡하고 외면하고 싶어하는 가장 세계인답지 못한 일본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아닐지 생각해 보았다.

인터뷰에 가까이 응해주신 고마츠 이사장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편집주간) 



뱀새라 불리는 붉은머리오목눈이



‘붉은머리오목눈이’라는 다소 긴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유명한 속담에 등장하는 바람에 ‘뱀새’라는 이름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거기다 생김새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작고 가늘게 찌진 눈을 지칭하는 ‘뱀새눈’이라는 말도 있다. 이렇게만 보면 비호감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인형인가 싶을 정도로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다.

참새목 새들 중에서도 작은 종류에 속해서 한 손에 쏙 들만큼 앙증맞다. 거기다 ‘뱀새눈’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게 동그랗고 새까만 조그마한 눈이 부리 양 옆으로 꼭 박혀있다.

어떤 사물이든 보는 방향과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뱀새눈도 마찬가지로 정면서 봤을 때는 눈이 찌져 보인다. 흔한 데다 별 특징 없는 새라 그런지, 찌진 눈이 강조되



インタビュー

‘和の文化’を創出する日本の人間自然科学研究所 小松昭夫理事長

まえがき（徐世旭編集主幹）

島根県の奇人企業人

小松理事長は日本国島根県松江市にある小松電機産業株式会社の代表取締役（人間自然科学研究所理事長）。

小松家先祖代々がくらして来た島根県は、文字通り“島の根”、すなわち、日本の根となる場所といわれる。特にこの地名を韓国の人びとが聞き慣れている理由は、日本では竹島といわれる独島が「島根県に属している」と人々に広く知られているからである。（日本人が竹が一本も無い岩の島を、なぜ竹島と呼んでいるのか知らないが）。

島根県の県庁所在地松江。小松理事長の名前に「松」が入っているのは、松江に根を張って生きるという運命的関係をあらわしているようにも見える。

日本人は木の中でも伝統的に、「松」と「竹」を国を代表する木のように思い、好む。人の名前と地名に「松」と「竹」は、薬屋にとっての甘草（漢方薬に甘草が不可欠であるように、欠くことのできないもの）のようによく使われている。

筆者は6年前に、松江を2回訪問した。2回とも小松理事長に会うためであった。

松江という都市名に相応しく、その都市はまるで水に浮かんでいるように見えた。規模は人口20万程度の中小都市だが、一枚の絵のような、風光明媚な雰囲気が漂っていた。特に海と河が出逢う汽水であることが、美しい景色を醸し出しているかもしれない。

筆者はこれまで日本の大小あわせて30カ所の都市を訪れているが、松江ほど感銘を受けた街はなかった。どこからでも水と松の木を望む松江が、さらに美しく見えたのは、小松昭夫という奇人がいたからかもしれない。

小柄なこの奇人に付いては、6年前「市民時代」に紹介したことがある。記憶力が良い読者は頭に刻まれていることと思う。

筆者と小松理事長の縁は、3年前お亡くなりになった李廷錫先生の紹介からであった。

先生は木曜学会の会員で、筆者に良いアドバイスをくださった恩人である。先生の日本に対する総体的な理解は、時々日本の知識人を圧倒するほど卓越したものであった。先生が小松理事長を紹介した理由は、彼の韓国に対する格別な関心と行動からだった。

彼は何よりも、過去に日本人が韓国人を苦しめたことを謝罪し、少しでもそれに対して補償したく、独立記念館・白汎記念館・安重根義士記念館などを訪問し、躊躇することなく献花・寄付を続けた。

最近(5月初旬)にはヨーロッパの、オランダ・ハーグに飛び込んで、独立指導者・李儔烈士記念館を訪ねて頭を下げた。そして過去の日本の暴力が韓国だけではなく、アジア全体を蹂躪し、数多くの人民に不幸をもたらした過去を、ただ「反省と補償」をする限定的なものだけでは、この地域に恒久的な平和はつくれないという点に気がつき、国際的な平和運動に取り組むようになったのだ。

小松理事長のこのような行動を見つめた故・李廷錫先生は、筆者を含め多くの人に彼を知らせた。小松理事長を取材して以降、6年余りの間、彼とはほぼ1年に一回くらいの割合で会っている。3年前の木曜学会創立30周年の際には、喜んで釜山を訪れお祝いをしていただいた。

筆者が今月号に彼との対談記事を掲載するようになったのは、先月6月14～17まで釜山BEXCOで開催された国際食品産業展に彼の会社が出展することからだった。小松理事長が6月16日に釜山を訪問した後、麗水EXPOを観覧するというスケジュールが分かったのが契機となった。

私は彼の釜山訪問日程中、済州島に行く予定があったが、それを取り消し、彼の釜山の日程と合わせることにした。彼の日程を、1日前の6月15日に釜山を訪問するようにできないかと意向を伺った。理由はその日の18時、「市民時代」を発行する木曜学会が釜山商工会議所で開く、国内最高の李瞬臣將軍研究家である金ジョンド最高裁判事の壬申倭乱（文禄慶長の役）から420

年を迎えた「李瞬臣『臣はすでに準備を整えました』」出版記念講演会の場に、小松理事長の参席が大きな意味を持つと思ったからである。

それは彼にとってもよい情報になり、手助けになるとなると判断した。それは日本が、韓国を植民地化した歴史事実はよく理解しているとしても、豊臣秀吉が指揮した壬申倭乱や、その戦争を勝利に導いた世界的な英雄、李瞬臣に付いてはそれほど理解していないだろうと思ったからだ。

幸い理事長は筆者の要請を受けて1日早く入国し、雨不足を癒す恵みの雨の中、会場に到着された。

あくる日、6月16日午後、筆者は彼を海雲台（ヘウンデ）の椿島（ドンベクソム）の「ヌリマル」へ案内した。APEC首脳会談があった場所である。その場所を紹介するとアジアの平和のために努力する彼に、ある種の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与えることが出来るかも知れないと思ったからであった。

そして、美しい海雲台が象徴する韓国最高のウォーキングコースを歩きながら対話するのが、より意味があると思った。

通訳は、本誌の成賢貞さんが務めた。彼はこの数年間、これまでの「平和運動」から、「和の文化」運動へ、より本質的で広い意味の平和運動に、変化を図っていることに、会話の焦点を合わせた。次は彼との対談内容である。

Q1 理事長は、20年あまり前から国際的な平和運動を展開して来ました。政治家でもなく、社会運動家でもない企業人として、平和運動に関わった特別な動機がありましたか？

工業高校の機械科を卒業後8年間、農業機械の研究開発に従事、閃きから想いを描き、演繹法・弁証法・帰納法を用い、現実化させる手法を身につけました。26歳のとき、その会社が倒産、1ヶ月間の座禅で、未来ではっきりしているのは死のみと気づき、どのように死を迎えるかとい

うことを確定、死後のことも想定して、人生のストーリーを思索する思考回路が生まれました。

2年間、大阪で小規模ビジネスの実践を学んだ後、1973年、28歳のときに、韓国でもよく知られている「竹島の日」をつくった島根県で、弟と2人でポンプ修理・電気組み立て業を始めました。地域に1社しかなかった制御盤・配分電盤業の会社を目標に、力を合わせ“追いつき追い越せ”で、家族と社員が生きていくための30人の家業をつくりました。

32歳の時、初めての海外旅行で、戒厳令下の韓国に行きました。夜間の相乗りタクシーで私が日本人ということが原因でトラブルに巻き込まれたことと、その後、軍事評論家・海原治氏の講演で、「明成皇后暗殺事件と七奪」という話を聞いたことの2つが重なり、その後の私の人生に大きな影響を与えました。

社会インフラの変化を追い風にして、身の丈に合った社会問題を経営資源と捉え、人材、資金、先端技術を投入、シートシャッター門番と、総合水管理システムやくも水神の2つの環境事業を興し、市場を創造、ブランド化、その収益で社員教育と研究所の活動を続けてきました。

Q2 理事長の平和運動には、財団法人人間自然科学研究所が中心になって来ました。その設立趣旨と事業、その間の事業実績を紹介してください。

1988年、知で社会が改革できる時代が来ることを予感し「知革塾」を立ち上げ、1994年、人間としての尊厳が問われている日本人が、未来への展望を拓くストーリーを描くために「人間自然科学研究所」をつくりました。

3年かけて準備をし、1997年、日本人として初めて韓国の独立記念館に、未来を拓くために謝罪、献花・寄付、そして趣意書を手渡しました。その後、韓国、中国、米国、露国、欧州の「戦争と平和博物館」への公式訪問と研究訪問を続けました。また、郷土の治水の偉人、周藤弥兵衛、清原太兵衛、大梶七兵衛の小説・児童文学・漫画を出版、記念シンポジウムを開催。日中戦争で島根・鳥取の兵士が大きな災難を与え、日本側も壊滅的な打撃を受けた中国山東省、国共合

作の地の記念館に公式訪問し献花・寄付、そして趣意書を手渡しました。日中国交正常化30周年記念事業として孔子、孟子、周藤弥兵衛、清原太兵衛の4体の銅像を、その地で制作。孔子、孟子像は鳥取県につくられた日本一の中国庭園「燕趙園」に建立しました。その後、日本の七福神の源流ともいわれる八仙人と西王母の大理石像建立の支援、さらに今までの活動を、孫子のふるさと中国東莞市から評価され、孫子の銅像をいただき、あわせて建立しました。ソウル支社設立を記念して、韓国で大運河の建設計画が進められていることから、金顕哲先生のご支援を得て、韓国語で3人の治水の偉人の漫画を出版しました。「国民日報」でも3人の治水の偉人の特集記事が掲載され、ウラジオストク、東海、境港を結ぶフェリーで、韓国語漫画とともに読め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また1998年、本社工場竣工記念として、中国「伝世蔵書」全123巻を島根大学に寄贈、1999年、研究所の理論を体系化した「太陽の國IZUMO」を出版、2002年「日中英対訳論語」、2008年「中日韓英対訳中国古典名言録」、2011年「朝鮮半島と日本列島の使命」の編纂、国際シンポジウムの開催、そして活動の映像記録をつくり、対立・統合・発展のサイクル「和の文化」が生まれる“共感のプラットフォーム”をつくる準備をして来ました。これらが平和活動家と見られる原因だと思います。

Q3 ところで、今までの一貫して推進した平和運動が、最近は「“和”の運動」としてより広くて深くグレードアップされた感じを受けますが、“平和”と“和”は、どこか似たように見えますが、あえて「和の文化」を強調する理由は何でしょう？

核の抑止力が効くなかで、世界規模の金融混乱が「信」の崩壊の連鎖を招き、人類がつくってきたあらゆる組織は内部崩壊か、進化かの分岐点に立っています。

私は事業と研究所の活動を通じて、北東アジアを中心に、共感のプラットフォーム「平」を創るプロセスで「信」を生み出し、対立、統合、発展を繰り返す「和」の生まれる環境を整えてきました。

人類は火を取り込み、火は火薬、ダイナマイトを経て核に至り、広島、長崎に原子爆弾が投下され、東西冷戦の時代を経て、米国、露国、中国の三大核大国と、たくさんの核保有・準核保有国をつくりました。また原子力発電所は世界中に作られ稼働していますが、スリーマイル島、チェルノブイリに続き、深刻な福島原発事故が起き、世界の稼働中・建設中・計画中原発に大きな影響を与えています。

また言葉は文字、印刷、そしてスマートフォン、タブレット端末、クラウド・コンピューティングの時代を迎え、情報の共有化が世界規模で急速に広がってきました。人類の生活基盤である衣食住は国境を超えた分業が進み、後戻りできない状況に至っています。

人類の長い歴史のなかで、三大核大国の結節点である「日本列島と朝鮮半島」に、人類進化存続のための共感のステージをつくり、米国のスマートパワー、中国の和諧、韓国の和諍、日本の和譲から叡智を借り、真の「和」を生み出す、見識と知恵と勇氣、そして行動力が試されています。

Q4 一般的に儒教・仏教文化圏で“和”は、一番人間的であり普遍的な価値で、生活の中に深く染み込んで、決してなじみの無い概念ではありません。日本における’和の文化’をもう少し分かりやすく説明して頂けないでしょうか？

カントの「人類は通常の状態が戦争状態であり、それゆえ平和は創り出さねばならない」は、示唆に富んだ言葉です。これは私見ですが、「和」は、共感の舞台「平」の上で、対立・統合・発展を繰り返す過程であり、静止状態ではなく、中庸の生き方から生まれる拡大する螺旋運動と考えています。

天才、弘法大師空海は1100年前に中国から真言密教を日本に持ち帰り、京都の東寺講堂に立体曼荼羅をつくりました。私はこれを見て「人類はおかれた環境により、限りなく悪魔にも、天使にも近づく、非常に多様性のある生命体」と感じました。時間と空間の間合いを生かし、会話のできる環境を整えれば、あらゆることは論理的に解決、希望の生まれる未来を描くことが

でき、グローバル化した世界において、3大核大国に囲まれた朝鮮半島と日本列島が、長い人類の歴史のなかで、世界に広がる「和の文化」を生み出せるあらゆる条件が整った唯一の地域であると確信するに至りました。

Q5 理事長が言われる「和の文化」を創出する人間自然科学研究所のプロジェクト構想で、人類が遭遇した現状を、対立様相を生かし、人類社会の新しい進化のためには、「和の文化」が必要であると強調されました。とても適切な分析と思われ、その処方も正しい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それであるのならば、人類社会の新しい進化のための「和の文化」の具体的な実現方案は何でしょうか？

「合成散敗萬古定理」（合わせれば成り、散れば敗れる、普遍の定理）

「衰颯的景象 就在盛満中 發生的機緘 即在零落内」（繁栄の極みに衰退の芽は生じ、衰退の極みに繁栄の芽は生ず）

日本での長い生活のなかで、怨念・恨みを抱く人、あるいは諦め・無関心を装う人、逆にその立場を生かして経済的・社会的に大きな成功をおさめた人、これからチャレンジしようとしている人など、日本には40万人ともいわれる特別永住権をもつ在日韓国朝鮮の方々がいっぱいいます。そういう方々と、大韓民国、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日本の国民とともに、中国、露国、米国の理解を得て、世界的な「和の文化」を創出する役割がまわってきたと確信しています。その具体化への入り口は沖縄、尖閣諸島、台湾の海峡、独島竹島を中心とした日本海、北方領土にあります。その時期は今です。

使用済み核燃料の再処理計画の先行きが見えないことも重なり、これに失敗すれば、国家民族の崩壊のみならず、人類崩壊への導火線ともなり、史上かつてない大きな罪を犯すことにもなりかねません。

Q6 そして、日本周辺の“和の文化圏”として、沖縄・尖閣諸島・台湾の海域と、独島を中心とした、日本海などと言及されましたが、これは、余りにも日本本位の「和の文化」を考えると、誤解の余地があるという点と、一方では‘和の文化’の必要性が日本のためにひき起こされると見ることもできるだろうと思いますが、この点はどのように思いますか？

和の文化圏は、決して日本本位で考えてい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

日本が初めて内政化（植民地化）した地は、明治維新後の琉球処分から生まれた沖縄県です。また沖縄は大戦後、米国の施政下に入り、朝鮮戦争、ベトナム戦争の前線基地となり、日本返還後も米国を中心とする西側社会の中核基地として、中東を含むあらゆる戦争と平和に関わって来ました。

日本が持っている諸問題、尖閣諸島、台湾の海峡、北方領土問題、独島竹島を中心とした日本海を巡る日本と韓国、日本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韓国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間の緊張による朝鮮半島の問題、すべてが当事国間だけではなく、世界を見渡し人類史的な視点から考え、人類の未来を拓くチャンスを私たちに与えています。

今、世界は金融経済の行き詰まり、核拡散、放射能、紛争、自殺、耐性菌の発生と免疫力の低下からくる癌の多発とウィルス蔓延など、困難な状況に陥っています。そういう時代背景の中で、日本は韓国、中国や他のアジアの国々から、過去の歴史問題について厳しい指摘を受けています。日本人として20年にわたり、加害側の戦後責任を果たすため、私を団長とする訪問団を結成し、過去に内政化や交戦した国々に謝罪と、因果関係とその背景を学ぶ旅を続け、「和の文化」の流れを生み出す舞台をつくる準備を進めてきました

Q7 まず、沖縄の場合、彼らに犠牲を強要し、苦しみを抱かせた歴史は、もっぱら日本による蛮行の結果であり、独島の場合も日本の無理な領土拡張の野望による結果であると歴史が言っています。日本が武力で朝鮮半島を侵略しなかったら、独島問題は日本が主張する何の理由も

無かったことと思います。この機会に理事長の独島に対するはっきりとした立場をお聞きしたいです。

これから人類は世界規模の「信」の崩壊から困難な時代に直面します。独島竹島、日本海東海呼称の問題については、日本、大韓民国、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三カ国の見識が問われる問題であり、人類史の評価にたえ、世界の紛争地帯に希望と勇気が生まれる事例に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そしてこれは世界の中で生きることを宿命付けられた、日本と大韓民国、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が必ず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であり、まず日本と韓国から、国民という立場で、議論の場を設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確信しています。

日本、韓国でもよく使われる「固有の領土」という表現については多少違う見解を持っています。領土は国民国家の時代以降の概念だと考えています。経緯と現状を踏まえ、未来を見通し、関係国の協議・承認によって領土が確定します。このプロセスが国民の見識を深めるのです。

「固有の領土」は世界中どこにもないの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ます。

私の故郷であり、また会社の本社がある島根県が「竹島の日」をつくることに、私は熟慮の上、賛成しました。なぜならば、歴史、独島竹島、海洋呼称問題など、あらゆる問題をテーブルの上に上げ、先端技術と時間・空間の間合いを生かし、共感のステージで、対立のエネルギーに統合のエネルギーを組合せ、対立・統合・発展を繰返す「和の文化」を創出できる時機が来たと確信したからです。

Q8 悲しい歴史の島、沖縄に’国際平和センター’の創設を始め、近代戦争のすべての犠牲者を記録する’メモリアルタワー’の建立、世界の戦争と平和と関連する写真と映像が見れる’世界平和・戦争記念館’の建設、平和の貢献者の発掘し、世界に知らせ、’和の文化オリンピック’などを開催する’和の殿堂’建設などを理事長は提案されました。とても奇抜なアイデアです。これが実現さえすれば人類の平和増進に、大変な影響を及ぼすと思います。問題はどのように

実現するかが重要ですが、理事長が具体的な腹案はおありでしょうか？

沖縄は悲劇の島であったと同時に、基地の島として、世界に悲劇をもたらした、両方の側面をもつ島です。この島に日本、米国はもとより、世界の人たちの未来を拓く知の施設をつくることは、異論のないところだと確信しています。

まず日本人と在日韓国朝鮮の方々との間で話し合いから始めるべきではないでしょうか。人類益という目的のもとに、使命を帯びた人による集団ができれば、ヒト・モノ・カネが集まり、発展のサイクルが生まれます。「ゼロからの創造」のプロセスは21世紀の家庭、会社、国家、人類社会などすべて本質は同じであり、持続可能な新しいコミュニティを構想する鍵になります。沖縄音楽の研究者から、次々と博士が生まれていると聞いています。「武器の代わりに三味線をもった琉球という王国がある」ということを、ナポレオンが聴き、「つぎに生まれてくるときは、そういう国に生まれたい」と言ったという逸話が残されているそうです。「会えば兄弟」と言う言葉は、沖縄でいまでも使われています。

縁あって、ノーベルの秘書を務めたこともある、女性ノーベル平和賞受賞者第1号であるベルタ・フォン・ズットナー女史の記念館建設の話が、オランダ・ハーグでの講演を契機に、「平和のための博物館国際ネットワーク」理事会の統括ディレクターのピーター・ヴァン・デン・デュンゲン博士から、私のところに持ち込まれました。この記念館を沖縄につくることを提案。これから素案をまとめる段階です。これに先立ち、胸像を制作し、ズットナー展を沖縄で開催したく、関係者と協議中です。

このプロジェクトは核大国である米国、露国、中国のみならず、世界の子どもたち、女性、男性に支持されると確信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流れになれば、朝鮮半島、日本列島、そして世界も新しい時代に向かう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Q9 理事長は、'和の文化'の創出において、人類全体よりも、まず、朝鮮半島・日本・中国に重点を置いているように見えます。とても当然のことと存じます。現在、この三ヶ国間には、領土・過去史問題が横糸と縦糸で編まれ、ソロモン王の知恵でも解き難い乱麻のように絡まっています。韓・日間の独島・従軍慰安婦・強制徴用・文化財回収の問題があり、日中間には、領土問題と日清戦争以後の補償問題がかかっています。問題は、3カ国の和のためには、何よりも先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日本の謝罪とそれに伴う法的・人間的補償です。日本は、戦争が終わって67年が経つ今日まで日本が行った残酷な犯罪と悪行を認めようとしないで、それに対する真の謝罪も回避しています。

理事長もご存知のように、個人間の関係でも激しい葛藤と対立があっても、お互い是非を明確にし、誤った人が謝罪をし、容赦を求めると和解が出来ます。この和解こそが理事長が成そうとする“和”の本質ではないでしょうか？ですので、いまにでも、日本と日本国民が誤った過去の過ちについて謝罪をし、それに対する補償をすると“和”は日本国全体で噴出する温泉のように溢れるでしょう。東北アジアは勿論、世界の“和の創出”に画期的な契機を備えることが出来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和の文化」創出に尽力なさる理事長が率先して、日本国内で意を一緒にする人に、誤まった歴史に対する日本と日本国民の反省と謝罪が出来るためにすべての努力に集中されるのが“和”を成す出発点になると存じますが、これに対する理事長の見解を聞かせてください。

まったく同感です。多大なる災難を与えた世代の子孫として、日本人として各国をまわり、戦後責任を果たす入口として、謝罪をしてきました。六カ国協議のメンバーである大韓民国、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日本の三カ国に関わるあらゆる歴史問題をすべてテーブルにあげると、問題が山積みになり、憤りや、ため息が出るはずです。

山積した問題群を、私は「禍」と定義しています。「禍転じて福となす」という言葉もあります。これを戦前、戦時、戦後責任の、三つの責任に分け、技術革新の成果を組合せれば、「福」

すなわち「和」を生み出すことができると確信しています。いま大きな問題になっている、竹島独島、日本海東海呼称、慰安婦の問題はこのプロジェクトが始まる入口です。

2011年2月22日の「竹島の日」に発刊した「朝鮮半島と日本列島の使命」で述べていますが、2008年5月の訪韓時に日本大使館前で、80歳を超えた元慰安婦の方々の日本に対する抗議活動に遭遇し、その雰囲気と回数に強烈な衝撃を受けました。この抗議行動は1000回を超え、少女の像も建立され、米国にも既に二つの碑が建立され、今後も多数の碑がつくられると聞いています。これは日韓両国家と民族の崩壊につながる本質的な問題であり、日本人はもちろんのこと、韓国人の見識と智慧と勇気が問われています。彼女たちは戦争中、大変な受難によって「尊厳の命」を失いました。私たちに日本人、韓国人、人間としての自覚があれば、彼女たちの戦後の長い間の困難な尊厳の命を取り戻す活動を放置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はずです。

戦争責任とは、戦争を未然に防げなかった戦前責任、戦時責任、そして戦後責任の3つに分類されます。戦争中に子どもであった世代以降は、戦前責任、戦時責任はありません。あるのは戦後責任です。戦前に作られた鉄道など社会インフラは利用するが、他国との関係から生じた怨念、恨みは先送りするということは許されません。

戦後責任とは、戦争に至った経緯と背景、戦闘行為、そして現代社会の問題を調査研究し、その成果を再び戦争を起こさないことと、恒久平和を生み出す資源として生かすことです。日本人はもちろんのこと、豊かになった韓国の方々を含めた、今を生きる私たちの子孫と人類の歴史に対する使命です。謝罪と償い金は、わずかな部分にしかすぎません。

Q10 「和の文化」と関連し、核と放射能について憂いを表明され、福島原発事故時の放射能災害やそれによる免疫力増進の必要性を言及する中で、発酵食品の摂取を強調しています。これを通じて人間自然科学研究所が先端科学と情報技術を結合し、放射能に対する免疫力を飛躍的に向上するための発酵先進化を導くというのですが、発酵食品が放射能に対する免疫力を増進するという根拠は何であり、発酵文化の先進化とは何を意味するのでしょうか？

免疫力向上の鍵は、文化、生きることの普遍的な意義の確立と、それを実現しやすい社会システム、そして食習慣にあると考えています。すなわち私の申し上げている「和の文化」そのものです。

妻の古くからの知人である、アメリカ・ボストン在住のマクロビオティックの世界的な指導者である久司道夫氏のネットワーク「ワン・ピースフル・ワールド」日本代表の大場淳一氏に、長崎被爆医師の記録という副題の付いた『死の同心円』という本をご紹介いただきました。それによれば爆心地から1.8kmのところにあった病院で被爆したのですが、その病院の入院患者も職員も、原爆症など放射能の直接の害によって亡くなった方は一人もいなかったというのです。この医師は職員にこう指示したそうです。「塩からい味噌汁をつくって毎日食べさせろ」。この医師の書いた本が英訳されて欧米で販売されており、チェルノブイリ原発事故の後、ヨーロッパで味噌が飛ぶように売れたといえます。味噌は言うまでもなく発酵食品です。

菌つまり微生物は多種多様で、人類はまだその全貌を解明できていません。環境の変化と菌の組み合わせの、新たな相関関係の発見などが期待できます。

朝鮮半島と日本列島にはキムチ、味噌、醤油など、発酵食文化の伝統が受け継がれており、発酵に適した独自の気候風土もあります。先端技術の成果と、伝統ノウハウを生かし、三カ国の対立エネルギーに統合のエネルギーを組合せ、研究開発と事業化に取り組めば、この地域を人類繁栄の基礎となる免疫力の飛躍的向上に向けた発酵食文化の先進地とすることができると考えています。

2010年のバンクーバーオリンピックにおける金妍兒と浅田真央の活躍は、私たちに希望と勇気を与えてくれました。対立のエネルギーと統合のエネルギーの組合せが、互いに自己新記録を更新し、金妍兒は史上最高得点、浅田は史上初の計3回のトリプルアクセル成功という素晴らしい結果を生んだ事例と言えます。

Q11 また、人間自然科学研究所は、世界的な食糧危機に備え、'日本海=東海海洋牧場'を提案され、この海洋牧場の中心にある独島を'和の文化圏'の発祥地にするため、'日本を含む朝鮮戦争 関連国の民族衣装を着た女性と子供の群像を建立する'と言っています。それは、理事長が独島を日本海に属したものと断定しているように見えますが、何か誤解があ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もし、独島を日本海に属するものと認識していましたら、韓日関係だけではなく、理事長の個人に対する韓国人の認識に大きな波長があると思います。これに対する理事長の立場を明らかにして下さい。

当研究所は、世界的な食料危機に備え、建築家・安藤忠雄氏も提言されている「日本海＝東海海洋牧場」構想を提案しています。この海域を免疫力向上に資する魚介類の世界最大の生産基地とする構想です。

これに先立ち、1999年に「竹島独島に朝鮮戦争に参戦した日本を含むすべての関係国の、民族衣装を着た女性と子どもの群像を建立し、人類社会の未来を拓く島に」と提案しています。

また2002年に、日本海東海の呼称を「中海」に、と提案していますが、無視され続けています。独島竹島問題と、首相の靖国神社参拝を契機に、中国では上海で抗日運動が起こり、世界的に困難な時代を迎えているときに、竹島、尖閣諸島、北方領土の、三つの領土問題が紛糾を始めました。日本も韓国も西側社会の一員として恩恵を受け、今日の繁栄が生まれました。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では、韓国の方々から見れば同胞、日本人から見れば日本の戦争責任・戦後責任に関わる方々が、大変な苦勞をなさっていると聞き及んでいます。

この問題を当事者はもとより、人類社会の未来のために生かすことが、今を生きる関係国民の、世界に対する戦後責任だと考えています。竹島独島問題、日本海東海呼称問題は、公開の場での話し合いがもたれていないことが最大の問題です。これは他の問題も同じです。結論は自ずから出るはずで。

Q12 理事長は、先月の5月3日、オランダのハーグを訪問され、その町にある、韓国の独立指導者リジュン烈士記念館にて献花をされ、安重根義士の’獨立’の書のレプリカを寄贈されました。日本人のリジュン烈士記念館の公式訪問は最初であったと認知しており、とても難しい旅行をされましたが、特別に李儼烈士記念館を訪れた意味があると思います。教えてください。

2012年5月に国際司法裁判所があるハーグで開催された「平和のための博物館国際ネットワーク」理事会で講演しました。その地にある、李儼平和記念館にて、李基恒院長を訪ね、「獨立」の書のレプリカをお渡ししました。

ここに至る経緯は、2008年10月に京都で開催された第6回国際平和博物館会議に、安重根義士記念館の金鎬逸館長、李惠筠総務部長、宋錫源慶熙大学校日本研究所長を研究所が招待し、そのおりに安重根義士の遺墨「獨立」を含む数点の確認と、韓国展示のお手伝いしたことから始まっています。

安重根義士は、旅順、韓国、日本のそれぞれの独立によって、東洋に平和がもたらされると主張したと聞いています。グローバル化の進んだ現代においては、三大核大国である中国、露国、米国の理解を得て、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大韓民国、日本の三カ国が、世界の期待を担い、恒久平和の流れを生み出す、特別な役割を果たす時がきたと考えています。

Q13 事実、朝鮮半島は、世界唯一の分断国であり、“不和”の中心地域です。朝鮮半島の分断と紛争には、日本の責任も大きいです。しかし、日本は責任を痛感するどころか、むしろ朝鮮半島の分断状況を楽しんでいると認識する見解も多いです。理事長は日本の指導者の一人として、朝鮮半島の統一のためにどのような役割が出来ますか？そして、日本はどのようにすべきであるでしょうか？この質問をする理由は、理事長が推進する’和の文化’創出に一番核心となる事案であるからです。

朝鮮半島の分断、また朝鮮戦争に至る経緯には、日本に大きな責任があります。日本、大韓民国、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三カ国が、中国・露国・米国の協力を得て、それぞれの特徴を生かし、世界の平和の流れを生み出す。これは朝鮮半島統一の前にしかできません。苦難の歴史を歩み亡くなっていった方々と子孫に対する、今を生きる関係国民の義務と責任です。

Q14 理事長は、これまで20年間、日本の良心として、はばかりことなく日本の国益・情緒に反する言行で日本国内で非難を受けたりされ、ご不便なこともあったと存じますが、このような状況と関連し、たくさんのエピソードがあると思いますが、ここでご紹介頂けないでしょうか？

グローバル時代における国益は、人類益と、国民が努力すれば「人間」としての認識が確立できることとの整合性が、必要不可欠ではないでしょうか。

たまにインターネット上で話題になることはありますが、危害を加えられるというようなことはありません。2008年には、「竹島の日」前日に、研究所にインターンシップに来ていた韓国の大学院の女学生を入れて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を、2009年には「竹島の日」当日の2月22日に六カ国協議参加国の国旗を掲げ、シンポジウムを開催しました。右翼の街宣車を取り囲む中、警察に護られ、700人が参加しました。その時に上映した安重根義士の映像は、大きな感動を呼びました。参加者は、島根県が開催した公式行事よりも多かったと聴いています。全国紙の一面にも報道され、多くの関心をいただきました。

2010年には「日本海＝東海を囲む 朝鮮・韓国・日本から 世界平和を」というシンポジウムが女性を中心に開かれ、研究所はこれを後援しました。在日朝鮮の方々でつくる朝鮮歌舞団の歌と踊りのあと、会場全員で手をつないで踊ることになりました。会場には、数人の右翼とおぼしき人がいたのですが、手をつないで踊りの輪に加わったのです。女性による企画の新鮮さを、参加者に強烈に印象付けました。この経験はプロジェクトの進展に、明るい展望を感じさせました。

Q15 この機会に日本人として、日本と日本人をどのように表現出来ますか？

長・短点両方をお願いします。

この質問は、誤解を招くおそれがありますので、控えます。

Q16 最後に、今経営する事業をご紹介します。

日本で293自治体、6000施設導入の実績を持つクラウド型総合水管理システム「やくも水神」で世界平和のブラットホーム構築の一翼を担う流れを生み出すべく、今回中国、韓国を訪問しました。

中国では、6月21日、河野営業企画本部長がJICAの方と一緒に中国水利部を訪問。「やくも水神」システムの今後の中国での可能性について話し合いました。中国では極めて大きな発展が出来る分野で、近くプレゼンテーションを計画、協力して行く事で合意しました。今年は日中国交正常化40周年の節目の年。中国山東省の国共合作の地で、「やくも水神」のブランド名の由来である、治水の偉人・周藤弥兵衛翁の銅像の制作に入りたいと計画しています。

韓国では、6月25日、河野、現地法人コマツコリアの尹理事、金マーケティング本部長が韓国水資源公社を訪問、10数名の方々に、「やくも水神」システムの概要と、今までの経緯、現状、これからの展望を説明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韓国は小規模水道施設の監視システムが未整備で、「やくも水神」システムの導入を検討したいということでした。今後、人的交流を含め、多くの面でつながりを持って行く事で合意しました。

日本で市場創造に成功した門番事業は、2010年、現地法人コマツコリアを設立、4回のソウル、釜山での展示会に出展。自動車、機械、電子、出版、物流、医薬、食品業界の方々の関心を集めました。その結果、ソウルのみならず、釜山・慶尚道地域からも弊社の経営理念に賛同した代理店も現れています。

本格的なクラウド・コンピューティング、スマートフォン時代を迎え、市民時代と釜山、韓国、世界の皆様と共に「門番」「水神」事業のみならず、発酵食品や貿易などを組み合わせた、関係する方みんなが幸せになるような新しいビジネスモデルの構築に取り組んでいます。

終わりに（徐世旭編集主幹）

小松理事長は日本の真の愛国者

筆者は、小松理事長とのインタビューを終え、この人こそもっとも日本的な人であり、誰よりも日本のことを愛する愛国者であると思った。

個人的にも自分自身に対する確固たる信念、もしくは自分の行動に自信が無ければ、人を気遣い、愛することはよっぽどのがなければそう簡単には出来ない。まして自分の故郷・自分の国に対する忠誠心がないと、隣国に対し温かい関心を持って行動に移すのは無理だろう。

1980年初めから始まった彼の韓国に対する関心と行動は、韓日両国の特殊な歴史関係を理解し、そのような歴史認識に根ざして展開してきたと見える。

長い間の彼との交流で感じたのは、彼は抜きん出た歴史認識と文化意識を持っていることである。彼の卓越した歴史観は、人間自然科学研究所を紹介する資料の表題に鮮明に表れている。

「歴史に暗い人は現在においても暗い」と喝破したドイツのワイツゼッカーの言葉と、ドイツをドイツらしく創り上げた鉄人宰相ビスマルクの次の言葉を掲載してある。

「愚者は経験から学び賢者は歴史から学ぶ」と...

小松理事長がこの名言を最初にあげているのは、おそらく、自分に不利な歴史を徹底的に歪曲し、背をむけたがる、グローバル人になれない日本人達に聞かせたい言葉であるからではないか、と考えてみた。

最後にインタビュー要請を快く受けてくださった小松理事長に深く感謝を申し上げる。

(終わり)